

'임실산타축제' 공식 취소

코로나19 대유행에 결정... 치즈테마파크 산타마을 경관 조성·방역 대책 강화

임실군의 겨울철 대표축제인 산타축제가 코로나19로 공식 취소된 가운데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조성된 산타경관으로 아쉬움을 달란다.

군은 당초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0 임실산타축제'를 공식 취소했다.

올해 산타축제는 전라북도 겨울철 관광상품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예산이 추가 지원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었다.

산타경관 및 포토존으로 구성된 '산타와 활짝', 각종 공연과 체험·놀이 등이 어우러진 '산타의 놀이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부스인 '산타의 주방' 등 3가지 테마로 치러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부득이

축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신 산타축제를 기다려온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실망할 것을 감안하여 축제를 준비하며 조성된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산타 경관은 일반에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테마파크를 찾은 방문객은 붉은색 포인세티아로 장식된 치즈캐슬 계단,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의 집 조형물 및 갖가지 캐릭터 포토존 등으로 꾸며진 산타마을에서 코로나19에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객 안전을 위한 방역대책은 한층 더 강화된다. 테마파크 입구에 방역소독기를 설치하는 한편, 12명의 방역요원이 입장객의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산타마을을 즐길

수 있도록 물설트 없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민 군수는 지난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방역부스를 방문하여 방역요원들과 면담하는 등 코로나19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심민 군수는 "작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준비했으나, 아쉽게 취소하게 된 것에 군민들과 방문객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대신 잘 조성된 꾸며진 산타마을에서 코로나19에 지친 많은 분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방문객 2만5,000명이 찾으면서 시작된 임실산타축제는 회를 거듭하면서 두배씩 방문객이 증가, 2019년에는 11만명이 찾는 등 전북도 겨울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옥천인재숙, 역대 최대 성과

서울대 6명·연·고대 4명·사관학교 7명 등 다수 합격생 배출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올해 서울대를 비롯한 사관학교 등 주요대학에 다수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최근 2021학년도 주요 명문대학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서울대 6명, 연·고대 4명, 의·한의예 4명, 포항공대 1명이 합격했다. 또 국군간호사관학교 2명, 육군사관학교 2명 등 4명이 2차 시험까지 합격했으며, 해군사관학교에는 3명이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 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룬 결과여서 더욱 뜻깊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처럼 옥천인재숙이 매년 꾸준한 성과를 내는 데는 인재숙 내에 사관학교 학생 수준별 특강 등을 별도로 운영하여 철저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옥천인재숙은 올해 입사생에게 맞춤형 입사컨설팅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입시 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명문대와 사관학교 합격생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옥천인재숙은 올해 명문대 다수 합격생 배출과 더불어 지난해에도 서울대 2명, 고려대 3명, 사관학교에 4명이 최종합격하는 등 최근 몇 년동안 꾸준한 성과를 기록하여 타 놓여준 자치단체의 교육시설 모범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 사태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시기에도 합격이란 성과를 거둔 순창의 인재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앞으로 순창 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커다란 인재로 커나갈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부족함 없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명품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대응 강화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지난 11일 공장·창고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 등을 넣은 저층 건물 구조재료로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한 반면에 충격과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화재 시 유독 가스가 새어 나와 철판 사이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화재진압이 어렵다.

주요 훈련 내용은 ▲지방 위 추락방지용 와이어 설치 ▲로프 활용된 대원안전확보 ▲신종 샌드위치 패널 화재진압 ▲파괴기법·장비숙달 등으로 신속한 화재진압과 대원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김민성 119구조대장은 "신종 샌드위치 패널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 이에 맞는 파괴기법 등의 변화를 통한 지속 훈련으로 화재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일 관내 고등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학금 전달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상덕)는 지난 11일 관내 고등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의 전달식 없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센터가 작은 바자회를 열어 후원품을 판매한 수익금과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회원들의 후원

금을 모아 마련했으며, 관내 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모범적이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17명을 추천 받아 30만원씩 총 510만원을 지원했다.

이상덕 센터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난방유 지원

남원시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위기가구(20세대)를 선정, 1가구당 난방유 등유 200리씩 총 4,000리(환가 248만원)를 지원했다.

또 협의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협약을 통해 '대산면 희망 나눔 모금사업'을 시작, 현재 정기기부자 50명, 일시 기부자 4명을 발굴해 총 388만6,000원의 후원금을 마련했고, 관내 기업체 (유)남원레미콘과 (주)대산에서는 정기기부를 약속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협의체 장정주 민간위원장은 "올 겨울 코로나19로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사랑의 난방유를 전달할 수 있어서 한없이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유세환 대산면장은 "소통·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나눔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1년도 임실군 학교 양공부 운영 지원증서' 전달

전국대회 휩쓴 우수초·중·고 학생 격려·지원

임실군은 지난 11일 군수실에서 오수초·중·고등학교장, 학생양공선수, 양공후원회 및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임실군 학교 양공부 운영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 양공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수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고, 내년도 양공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기자재, 훈련복, 훈련비, 코치수당 등을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북도국제양공장이 위치한 오수면 소재 오수 초·중·고등학교 양공

부는 오수초등학교 양공부가 1980년 창단된 이래 순차적으로 우수중학교, 오수고등학교 양공부를 창단했다.

임실군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양공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양공부는 그동안 치러진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양공 명문으로써 이름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올해 치러진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시도대항 전국 남녀 중·고 양공대회에서 여고부 60m 1위, 여중부 개인 3위, 화랑기 제41회 전국 시도대항 남녀 양공대회에서 여중부 단체전 1위를 기록하였고, 제47회 한국 중·

고 양공연맹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양공대회에서 여중부 개인과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여기에 임실군은 2018년 10월 오수면에 국제대회 규격의 전북국제양공장을 준공하며 전국대회, 전지훈련 등을 유치함으로써 양공메카로의 도약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코로나 상황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복표를 향한 집념으로 꾸준히 연습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매우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학생선수들을 격려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전북도 지적·토지정보 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기관표창·우수기 받아

남원시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시행된 2020년도 지적·토지정보 업무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과 우수기를 받았다. 이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남원시는 2020년도에 추진한 지적업무뿐만 아니라 토지

관리,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수범사례 등 5개 분야에서 심사를 받은 결과 현장중심의 적극 행정 추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결과는 2019년도에 이어 연이은 결과로 남원시의 지적·토지행정이 지속적으로 호평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황종연 남원시 민원과장은 "이번 평

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분야의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시민 편의 위주의 지적·토지행정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2021년도에도 상호 소통하는 시민중심의 지적·토지행정 업무추진과 더불어 혁신적인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